

# 제36회 과총포럼 행복한 과학기술 릴레이 토론회I 연구비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일 시 2011. 5. 19. (목) 10:30 장 소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대강당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대덕넷



제36 · 37회 과총포럼 - 행복한 과학기술 릴레이 토론회

## 행복한 과학기술계, 해답은 과학기술자들에게 있다

글 **임은희** 대덕넷기자 · **조서영** 객원기자

**행**복한 과학기술계를 만들기 위해 과학자들이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박상대)와 대덕넷(대표 이석봉)은 지난 5월 19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제36 · 37회 과총포럼(행복한 과학기술)'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현재 연구환경을 점검해 봄으로써 과학자들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연구환경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연구성과 · 행정 부담 때문에 대형연구과제 회피

5월 19일 대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대강당에

서 열린 '행복한 과학기술' 토론회에 참석한 박영일 과총정책 연구소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인들이 처한 연구 환경은 행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수많은 연구진들이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인들이 마음 놓고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스로를 자유선진당이 아닌 '과학기술당'이라고 소개해 박수를 받은 이상민 국회의원은 "현재 과학 현장은 승천하는 기운보다 불만이 많아 연구에 몰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가 과학기술인들이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 이충희 KISTI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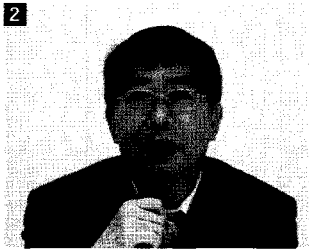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비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제36회 과총포럼은 이광형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가 ‘과학기술자 연구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이충희 KISTI 전문연구위원이 ‘과학자 행복을 위한 과학기술 행정의 조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광형 교수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의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인들도 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를 내다보는 연구를 해야 하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연구, 산업화가 가능한 연구 등에 몰두해야 한다”며 좀 더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산재해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먼저 중진 연구자들의 부담감을 토로하며, 중진 연구자들이 연구성과와 행정 부담에 이어 복잡한 연구비 관리 규정까지 세세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감사에서 연구비 유용을 지적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태관 KAIST 교수를 언급하며, 연구에 몰두해야 하는 과학기술자들이 다른 곳에서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연구를 많이 하면 피곤하다. 연구를 많이 해서 연구비를 많이 받게 되면 반드시 감사대상이 된다”며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 조사당할 게 뻔하니까 대형 연구과제의 책임자를 아무도 맡지 않으려한다. 지금 과학기술계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행복한 과학기술 조건은 이공계 활성화

그러면서 행복한 과학기술 조건으로 이공계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연구원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젊은 세대가 행복한 과학인의 노년을 목격하고, 스스로도 이 공계로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1



▶▶ 1 김명수 대덕연구개발특구기판장협의회 회장  
2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  
4 원미숙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명예회장  
5 이영호 대전과총 회장



년에 추가 투자되는 예산 (약 15조)의 10%만 이공계

활성화에 투자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과학자의 행복을 위한 과학기술 행정의 조건’을 제목으로 주제 발표한 이충희 KISTI 전문연구위원은 “과학자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연구환경에서 안정적인 연구를 지속해 우수한 연구업적을 낼 수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며 “여기에는 과학자로서의 긍지와 과학자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전문위원은 과학기술계의 몇 가지 문제점으로 출연연 통폐합과 투자결과에 대한 조급증, PBS 제도의 부작용을 예로 꼽았다. 그는 “출연연 통폐합으로 연구원들의 불안감과 사기저하를 초래했다. 또한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 결과를 단기간 내에 기대하는 조급증 역시 과학자들의 행복에 역행하는 과학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PBS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했다. “PBS 도입으로 외부 과제의 수주 경쟁에 치우쳐 각 연구기관 고유연구업무를 소홀히 하게 됐다. 그 결과 국제적 경쟁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무엇보다 연구원에게 대학 교수에 준하는 사회·경제적 대우가 필요하다”면서 연구원의 정년 환원과 연금 보장, 정규직의 인건비 전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현장은 조정·통제 아닌 지원·육성대상**

발표 이후 진행된 지정 토론에서는 김명수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회장(표준연 원장)을 좌장으로, 박진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제도과장, 원미숙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명예회장,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 이영호 대전과총 회장, 박희범 전자신문 기자가 의견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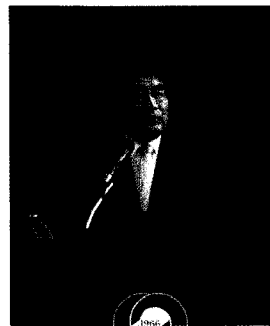
민철구 STEPI 선임연구위원과 박희범 전자신문 기자는 인력 투자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민 선임연구위원은 “외형적으로 과학기술계가 대단히 좋게 비쳐지고 있지만 내부는 행복한 것 같지 않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이나 관리가 선진화되지 못했다. 양적 성장에만 몰두해 있다”고 꼬집었으며, 박 기자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유성구로 결정이 됐는데, 기초과학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다는 술렁임이 들린다. 왜 옮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부가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연구원들이 한다. 연구원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은 과학자의 노력을 촉구 하고 나섰다. 그는 “많은 연구 종사자들이 외적 환경에 많은 아쉬움을 호소한다. 그러나 암울한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야기가 필요하다. 스스로가 연구를 놀이처럼 여길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이 연구 현장을 조정과 통제 대상으로 본다면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위해선 연구 현장을 지원과 육성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미숙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명예회장이 언급한 PBS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박진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제도과장은 “PBS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국과위가 출범하기 전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다. 실제로 개선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나아지는 분위기이다. PBS에서 블록 펀딩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영호 대전과총 회장은 “이렇게 역시 돈을 많이 받는 직업으로 인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성과 창의성 강조하는 환경 만들어야**



▶ 이덕환 서강대 교수

한편 5월 23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7회 과총포럼은 ‘신명나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이 논의 되었다. 박상대 과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약 없는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훌륭한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연구문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

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이덕환 서강대 교수의 ‘연구 자율 및 창의성 제고 방안’에 이어 ‘연구 자율성 제고의 제도·환경적 문제점’에 대해 윤기봉 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이 맡았다.

이덕환 교수는 “과학기술투자가 2012년엔 1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대 과학기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에 대한 불만이 높다”며 “과학기술투자는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과학기술계의 발언권, 영향력, 자율성이 줄어들고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도 없어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명나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 확보와 국가연구개발의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과학커뮤니케이션과 과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계가 국가경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했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의 투자와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적 과학기술정책과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윤리적 책임과 자신감을 가지며 주체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실효성이 있는 자율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신명나는 과학기술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기봉 전국대학교산학협력단장은 ‘연구관리 제도와 연구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윤 단장은 연구자를 선의의 관리자로서 가정하고, 연구책임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에 투입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과학기술인에게 논문편수, 인용지수, 수주액 등이 요구되고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여유가 있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성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 과학기술계, 사람 중심의 소프트웨어 측면 중시돼야

주제발표 후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성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박진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제도과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민화 한국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최순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홍성준 연세대 전기전자공학과 학생(박사과정)이 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민철구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고립문제에 주목하며, 사람 중심으로 거버넌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덕환 교수가 발표한 ‘과학커뮤니케이션’ 개념을 확



▶ 1 박진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제도과장 2 박성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3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4 최순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장하여 정부차원의 과학기술자 사회적 고립문제 해결과 과학기술 커뮤니티의 조성을 연결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2010년에 수행했던 과학기술자 보상에 관한 연구를 들면서 “과학기술자들이 원하는 보상은 금전적인 것이 46%를 차지했고, 나머지 54%는 직무만족도, 연구환경 개선, 직장의 안정성과 같은 관계적 보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기초연구본부장은 “정부는 과학기술자와 교수를 대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연구비의 ‘수혜자’가 아닌 연구를 부탁받은 ‘참여자’로 존중하면 연구자의 자존심과 신뢰감을 높여 결국 신명나는 연구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희 연구제도과장은 “국과위가 공동관리규정과 과학기술기본법의 전면 개편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법령 정비 노력을 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측면과 이행하는 측면은 다르다. 과충을 중심으로 국회에 이리한 과학기술계의 필요성을 건의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최순자 회장은 “정부가 미국 못지않게 연구비를 광범위하게 잘 주고 있다. 우리들 스스로 연구자 윤리, 인간 감성, 인간중심 체계를 생각하며 자정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실 논설위원은 연구 관리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고, 이민화 명예회장은 국가 주도의 R&D는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R&D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준 대학원생은 “학생들도 연구지원 업무나 행정업무가 많다. 교수님들도 대형과제를 수주하기가 부담돼 작은 규모의 과제를 맡게 되면 좋은 논문을 위한 연구가 아닌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술구현 과제인 경우가 많다”며 대학원생들의 입장을 밝혔다. **ST**